외국인 정서 반영한 습의 교육 필요

현각 스님 발언으로 본 한국불교– ③ 외국인 승려는 데코레이션

현각 스님이 쏟아낸 한국불교에 대한 실망감이 파장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 스님들에 대한 조계종 폐쇄성을 두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각 스님은 2~3년간 7~9명의 조계종 외국인 스님들이 환속했고, 상좌들을 조계종으로 출가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까지 말했다.

그렇다면 외국인 스님들이 조계종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8월 4일자 조계종 외국인 스님 현황을 보면 총 131명의 스님들이 조계종 소속으로 정진하고 있다. 비구 스님이 54명, 비구니 스님이 26명으로 사미와 사미니가 51명이다. 문제는 2011년 기점으로 입교하는 행자 수가 15명 수준에서 5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런 여파로 화계사에 있던 외국인행자교육원도 올해 초 폐쇄됐다.

류창무 교육원 팀장은 "전체 외국인 스님 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행자 수 감소 문제가 크다. 출가자 감소라는 전체적인 영향과 한국불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불교에 대한 매력은 무엇일까.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행을 택하는 주된 원인과 한국불교 승려교육의 현실이 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조계종 외국인 스님 현황의 출신 국가를 분석해보면 미국 출신이 30%(39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스님 중 70%가 미국와 유럽 출신이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불교의 선수행, 특히 간화선을 접하고 한국행을 택했다.

화계사 국제선원 도감 혜통 스님은 "대부분 화두를 참구하고 있다. 선수행의 경우 프라이버시 존중 등 개인 위주인 외국의 문화와도 맞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런 스님들에게 경전 공부와 의식 습의는 어떻게 보면 장식에 불과해 보일 수 있다. 현각 스님은 이에 대해 언어장벽의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불교를 익히는데 너무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조계종 승려교육은 한국어를 기반으로 진행하기에 외국인 스님들은 사미계 수계 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을 취득해야 한다. 여기에 경전 강독을 위해서는 한문 공부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숭산 스님이 세운 관음선종의 교육과 대비된다. 계룡산 무상사의 경우 영어를 기반으로 법회와 경전 강의, 간화선 인터뷰 등이 진행된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관음선종 세계분원을 통해 유입되는 스님들이 줄어드는 원인도 있다"고도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숭산 스님이 외국인 출가자들을 위해 관음선종을 만든 것은 사려깊은 접근 방법이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수행자들이 조계종으로 출가해도 문화와 전통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종도로 살아가는 것을 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 내에 가두려 하지 말고 각국 수행자들이 일정기간 공부하고, '미국불교조계종' '유럽불교조계종'을 창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조계종은 큰 형님으로 내국인 습의사와 외국인 강사진을 배치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간화선 수행자
일률적 잣대 들이대
영어법회·해외교구 등 활용

이와 함께 조계종이 현재 보유한 해외교구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포교분야에 외국인 스님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들이 포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미숙 화계사 종무실장은 "외국인 스님들 중 한국 내 포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다. 이들을 위한 포교의 문호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화계사의 경우 일반신도들이 참여하는 영어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외국인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또 지난해까지 영어동아리반이 구성돼 외국인 스님들이 이를 지도한 바 있다. 전 종무실장은 "해외 포교의 여러 현장에서 원력있는 외국인 스님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각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국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출가 희망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친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열린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계 '케이블카 반대' 공론화… 사찰은 '침묵'

환경위, 설악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반대 표명

전국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자연 및 식생 파괴를 우려한 국민적 반발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설치 추진 지역 인근 사찰들은 모른 척 뒷짐 지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및 불교계 시민사회·환경 단체가 설악산·속리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앞장서 반대하지만, 정작 지역사찰들은 '민심 눈치보기'에 급급해 불교 근본의 생명존중 가치관을 상실했단 지적이다.

특히 법주사는 최근 일부 언론이 "법주사가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지자체에 적극 협조하겠다 밝혔다"고 보도해 불교계 및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았다. 본지가 법주사에 확인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명확한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긍정적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안춘석 법주사 종무실장은 "지자체서 오랫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해 와 '노선 등 설치 계획을 확정하면 그때 검토하겠다' 말했을 뿐 완전 동의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케이블카 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다. 하지만 아직 어떤 계획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문화재위원회가 8월 24일 심의회의서 '사업보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인제군 사회단체들이 '내설악 백담사 케이블카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케이블카 추진에 적극 나섬에 따라 설악산 자연 생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 가운데 설악산 신흥사는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예정된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반대편에 위치해 직접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산양 서식지 등 자연파괴 사회적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도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신흥사는 올 6월 '교구본사별 사회노동환경위원회'가 처음으로 설치돼 지역사회 환경 현안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창설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유명무실' 해져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신흥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서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찰 측서 거론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종무회의 때 따로 얘기된 적은 없다. 사찰이 환경 보존을 위해 나서야 하는 건 맞지만, 개발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며 "사회노동환경위원회가 설치된 사실은 알지만,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케이블카 설치에 적극 협조하는 곳도 있다. 마이산 탑사는 경내 요사채서 150m 이내 지점에 탑승장이 설치될 예정이지만,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서 진안군에 협조하는 상황이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불교계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말이나 휴가철엔 관광객이 몰려 사찰 인근 교통이 거의 마비되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불교적 생명존중 사상 입각해
'자연보호' 목소리 높아지지만
지역사찰 민심 눈치 보기 '급급'
관광자원 활성화 동조 이유도
"이해하지만 불교적 소신 지켜야"

이 같은 사찰들의 방관적 혹은 협조적 태도에 환경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사찰이 지역사회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하더라도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케이블카 설치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란 타당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 구역의 대부분이 자연공원인데, 이를 훼손하는 데 있어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사찰이 협조하는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개발이 지역사회에 당장 이익을 미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환경 보존이 최선"이라며 "직접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사찰이라면 평상시 지역사회에 환경보호 인식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에 국한된 이익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 이하 환경위)는 8월 23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자체 제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적합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8월 28일 조건부 승인됐다"며 "무리한 승인이란 비판과 사회적 우려가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조계종단 환경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합세해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지역사회가 비판하더라도 불교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대중공사 "멸빈자 구제 방안 있어야"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서 11월 종회에 요청키로



대중공사 입재식에서 참석한 대중들이 대중공의를 통한 종단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가 94년 멸빈자뿐만 아니라 통합종단 이후 모든 멸빈·징계자들에 대한 사면과 경감, 복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조계종 중앙종회에 요청키로 했다.

조계종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대중공사 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현대사의 성찰과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불교'를 주제로 제3차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출·재가 위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추진위원장 지현 스님은 입재식에서 "사부대중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을 대중공사에서 잘 살피고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과거사의 매듭을 화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잘 풀어내자"고 말했다.

이어 94년 서의현 전총무원장 재심판결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가 1년간 활동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재심호계원의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 무효화, 멸빈과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 등 4가지 안을 제안했다.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 일감 스님은 "94년 종단개혁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종도대중의 공의에 반하며 종헌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인 결정으로서 이를 무효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 등은 사면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더 나아가 "통합종단 출범 이후 모든 멸빈 및 중징계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제안에 따라, 94년 멸빈자뿐만 아니라 통합종단 이후 모든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경감·복권 조치를 검토해줄 것을 11월 종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참회문 발표는 취소됐다. **노덕현 기자**

"직선제 법계별 여론조사 하겠다"

직선제특위, 8월 23일 입장 밝혀

법랍 10년 이상의 법계 중덕과 정덕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직선제 특위가 법계별 선거권 부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선출제 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 이하 직선제 특위)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직선제 특위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선거인단 구성을 확정하고 선거권 부여와 관련해 불교사회연구소 등과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종헌과 종법 개정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태관, 선광, 정산, 목종, 무구 스님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직선제 특위 소위원회가 9월말까지 개정안을 성안하면 특위는 10월 경 공청회를 열고 이 안을 11월 정기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회집본 『무량수경』

| 정토수행을 안내하는 종합지침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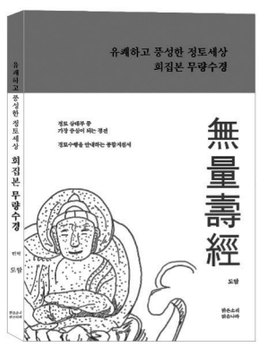


왕생으로 가는 최상의 지름길, 염불수행 학문적 이해와 수행 실천 함께 해나가야
정공법사의 강의로 수행 이정표 제시

정토수행을 안내하는 종합지침서인 무량수경은 중국에서만 12차례 번역되었고 5종의 판본이 남아있다. 무량수경은 5종의 판본 가운데 대표 판본을 선정할 수 없어 대중화 될 수 없었는데, 이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판본의 무량수경에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5종 판본의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회집된 것은 1932년 하련거 거사에 의해서였다. 도암스님의 『무량수경 회집본』은 하련거 거사의 '불설대승무량수장엄청정평등각경佛說大乘無量壽莊嚴淸淨平等覺經'을 번역한 것이다.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먼저 불교의 종지 즉, 방법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근기로 배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종지를 경전의 용어로 말하면 '제법실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 입니다. 현대의 말로 표현하면 일체법의 진실한 모습을 분명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_ p28

시방세계에서 왕생한 일체의 사람은 모두 칠보 연못의 연화 속에서 자연히 화생으로 태어나며, 맑고 텅 빈듯하며 노병사가 없는 신체를 모두 받는다. 그리고 다시는 3악도와 고난이란 명칭도 듣지 못한다. 가설방편으로도 그 명칭이 전혀 없거늘, 하물며 실재의 고난이 있겠는가? 단지 자연스럽게 즐거운 음성만이 있을뿐이니, 이 때문에 그 국토를 극락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_ p231



도암 번역 | 340쪽 | 17,000원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26번길 18 동광빌딩 201호 **Tel.** 051-255-0263 **Fax.** 051-255-0953 **전자우편.** puremind-ms@hanmail.net 월간·도서출판 맑은소리맑은나라